



제주도 혼저옵서예

나래장애인주안복지센터



무더운 태양이 내리쬐는 6월 마지막 주 수요일, 나라에서는 이용자분들과 새로운 장소에서의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고 더욱 즐거운 추억을 쌓기 위해 캠프 장소를 제주도로 선정하여 2박3일 하계캠프를 다녀왔습니다. 캠프 준비하는 내내 함께 설레는 마음을 가득 안고 일정을 조율하며 매일매일 이용자분들은 제주도를 향한 질문과 설렘이 가득합니다. 출발 전날부터 비와 바람으로 모두들 걱정하였으나 마음만큼은 최고로 즐거웠답니다. 비행기를 타고 멀리 이동하는 만큼 안전을 제일 중요시하며 오리엔테이션을 진행 후 기대를 한 가득 안고 지하철을 이용하여 공항으로 출발하였습니다.

공항에 도착 후 비행기 표를 발권 받고 수하물 검사까지 마친 후 탑승구로 향하였습니다. 비행기 탑승 시간이 다가올 때 제주도의 기상악화로 비행기가 지연된다는 방송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친구들은 풀이 죽기는커녕 이정도 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비장한 표정과 함께 가방을 내리고 의젓하게 자리에 앉아 출발 방송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드디어 출발입니다! 비행기에 탑승하여 가방을 짐칸에 넣고, 자리에 모두 앉아 벨트를 착용하는 도중 “무서워요.”라고 외치는 이용자가 있었습니다. 서로 “괜찮아.”라고 응원도 해주고, 손도 잡아주며 50분 정도가 지나자 저 멀리 ‘제주국제공항’이 보였습니다. 손을 잡고 공항에서 버스를 타고 제일 먼저 제주도의 가장 유명한 생선인 옥돔구이로 맛있는 점심을 한 후 한림공원으로 이동해 수국, 선인장 등을 관찰하고 사진도 찍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카멜리아 힐을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폭우로 인하여 이섭지만 다음 번을 기억하며 숙소로 이동해 이용자들이 가장 기다리는 물놀이와 바비큐를 진행하였습니다. ‘어푸, 어푸’ 수영도 하고 물총도 활용하여 이용자와 선생님들 모두 즐겁게 물놀이를 마치고 바비큐와 간식도 먹으며 즐거운 첫날 일정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둘째 날 아침, 호우경보라는 날씨예보를 듣고 모두들 걱정했지만 우리는 알록달록 비옷을 입고 당당하게 출발하였습니다. 원래 예정되었던 비자림은 우천으로 관람이 어려워 실내에서 워터서커스라는 물이 나오는 공연을 관람 후 점심식사로 불고기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오후에는 아쿠아 플

라넷에서 여러 종류의 물고기와 상어, 가오리, 펭귄 등을 보던 중 커다랗고 귀여운 가오리와 함께 사진을 찍기 위해 고군분투하기도 하고, 해녀 공연도 관람하며 선생님들과 이용자들 모두 해맑은 미소와 함께 몹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음 코스로 반짝반짝 빛나는 별을 직접 볼 수 있는 별빛누리공원으로 이동하여 별자리와 퀴즈 맞추기, 우주에 대해서 전시된 모형들을 직접 보고 체험도 해 보았습니다. 실제 별을 관측하고자 하였으나 날씨가 흐려 관람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쉬워하였지만 천체 투영으로 다 함께 누워 천장에 보이는 영상과 함께 별자리에 대한 이야기들도 들어보았습니다. 숙소로 돌아가 맛있는 과일과 아이스크림 등 간식을 함께 펼쳐 놓고 파티를 하며 제주도에서의 마지막 밤을 뜨겁게 불태웠습니다.

마지막 셋째 날, 마치 우리에게 인사를 하듯 하늘에서는 따사로운 햇빛이 내리쬐며 좋은 날씨를 보였습니다. 모두들 짐을 챙겨 에코랜드로 이동하여 한 칸에 6명씩 짝을 지어 메인역에서 기차를 탑승하였습니다. 첫 번째 에코브릿지 역에서 두 번째 레이크사이드 역까지 도보로 이동하며 호수 너머로 펼쳐진 풍경도 보고 길목마다 서서 너도나도 아름답게 사진도 촬영하였습니다. 세 번째 피크닉가든 역에서도 푸르른 들판 위에 올라 꽃과 풍경들을 관람하고 살랑살랑 불어오는 여름바람을 느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버스로 40분 정도 이동하여 점심식사로 제주도의 별미인 고기국수를 맛있게 먹은 후 근처에 위치한 용두암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용머리 모양의 돌을 관람하며 제주도민 선생님께 유래에 대한 설명도 듣고, 다 함께 바람도 쐬고 따뜻한 햇빛 아래서 두 팔을 활짝 벌려 사진도 찍어보았습니다. 또 무더위를 식히고자 시원하게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매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아쉬움을 뒤로한 채 인천으로 돌아왔습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로 지치고 힘이 들 때 서로 손을 잡고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며 뜻깊고 행복한 추억을 쌓을 수 있었던 2박3일 하계 캠프, 나라 친구들이 모두 함께하여 더욱 즐겁고 빛날 수 있었습니다. ^^ 

